

장기이식에 대한 일반인의 태도 및 영향요인

손 영 희* · 조 정 민*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현대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생명이 연장되었고 이러한 인간의 수명연장은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철학적, 종교적, 윤리적 문제에 대한 논란을 야기시켜 왔다(Lee, 1991; Park, 1993).

그 중 대표적인 영역이 장기이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이 어떤 장기의 질병을 더 이상 치료할 수 없을 때 장기를 타인의 장기로 대체하는 것을 장기이식 수술이라고 한다(Han, 1998). 지난 40년간 고도로 발달한 의학, 외과적 수술기법 및 면역억제제의 발달로 인해 이미 선진국에서는 말기환자의 가장 추천할 만한 치료선택으로 장기이식 수술이 시행되고 있으며 따라서 신장, 간장, 췌장, 심장, 폐이식 등은 이미 보편화되고 최근에는 실험단계에서 장이식, 사지이식, 뇌이식 등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69년에 성공적으로 신장이식이 시행되었고 뇌사자로부터의 이식은 1979년에 신장이식이 처음 시행되었다. 그 후 1988년 뇌사자로부터 적출한 간 이식이 성공하면서 뇌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 일으켰으며 1992년에는 췌장 및 심장

이식이 1996년에는 폐이식이 성공하기에 이르렀다(Ha & Kim, 1996).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장기이식 수술이 실험단계를 지나 일반적인 하나의 치료방법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또한 1979년 의료보험이 실시되고 이후 1989년에 의료보험 혜택이 전 국민에게 확대 실시되면서 신장이식에 대한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었다. 1993년에는 대한 의사협회에서 뇌사의 정의와 뇌사판정 기준이 마련되어 뇌사자로부터의 장기이식이 활성화되면서 국내에서의 장기이식은 수적증가와 더불어 질적발전을 가져왔다(Kim, 1996; Park, 1995).

이에 따른 다양한 장기이식 수술은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줌으로 그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나 장기기증자 수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Song, 1993). 현재 가장 이식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은 신장이고 그 다음으로는 심장, 간장, 췌장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수술에 가장 위험 부담이 많이 따르는 폐이식 사례는 수요가 많지 않다. 뇌사가 합법화 되어있는 미국에서도 장기이식을 받고자 희망하는 환자의 수에 비해 장기의 공급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나 미국은 문화적으로 장기의 기부 혹은 기증의 개념이 일반화 되어있고 제도적으로 기증카드를 소지하는 등 국민의 인식이 높을 뿐 아니

* 국립의료원 간호대학(교신저자 조정민 E-mail : ccm9660@yahoo.co.kr)

투고일 2002년 6월 20일 심사외뢰일 2002년 6월 28일 심사완료일 2002년 8월 7일

라 국가차원의 장기기증센터인 OPTN(the Organ Procurement and Transplantation Network)과 UNOS(United Network of Organ Sharing)의 24시간 전산망을 통하여 장기취득과 수혜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교육을 통한 전문인의 질관리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Phillips, 1991).

우리나라는 1997년 8월 보건복지부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안'을 입법예고 하였고 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2000년 2월 9일부터 뇌사가 합법화되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윤리적 문제로 논란도 있었지만 이전 보다 뇌사자 장기이식이 활발히 이루어 질 것으로 전망된다(Pusan Ilbo, 2000). 이와 같이 뇌사를 법적으로 인정하고자 하는 실질적인 이유는 무엇보다 장기이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뇌사상태에서 활용 가능한 장기를 타인에게 이식하여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바람직하고 사회 경제적 손실을 막고 가족을 보호한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우리사회에서 뇌사인정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 있고 전통적인 유교사상의 영향과 불교의 극락왕생이념을 고수하여 사체훼손에 대한 두려움이나(Kim, 1992) 장기기증에 대한 우려 등 부정적인 태도들을 가지고 있다(Lee, 1993). 따라서 장기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장기기증이나 이식에 대한 태도를 단순히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이라고 설명하기보다는 일반인들이 이에 대한 이해부족을 줄여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장기이식에 대한 사회적 윤리기준의 확립과 제도적 보완의 방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Ju, 1995).

장기이식 수술이 시행된 이후 대부분의 연구는 이식수술을 성공시키기 위한 수술절차에 관한 기술적 측면의 것이었으며 극히 일부의 연구에서 이식할 장기가 부족한 이유를 밝혀 내거나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가 시도되었다. 또한, 잠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기들을 어떻게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연구가 진행되었다(Ju, 1995).

많은 연구에서 의료인의 장기기증에 대한 지식과

태도가 가족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Strak & Reiley, 1984; Bidigare & Oerman, 1991; Matten & Elena, 1991).

최근 국민들의 이해와 공감대가 확산되어 장기 기증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국내 이식분야는 외국에 비해 역사가 짧고 전반적인 뇌사, 장기기증 및 이식과 관련하여 인식도가 낮아 장기이식 태도 및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규명하기 위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국내에서의 장기이식과 관련된 연구는 초기단계의 제도적 뒷받침을 위한 뇌사에 대한 윤리적 도덕적 문제에 관한 연구(Son, Kim, L. Y. & Kim, K. I, 1994; Lee, K. S., 1993; Lee, I. S., 1993)들이 대부분이었고 일반인들이 장기이식에 대해 어떠한 인식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연구는 거의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사회에서 장기이식 및 장기기증에 대한 활성화를 위한 일 방안으로 주 기증자인 일반인들의 장기이식에 대한 태도양상을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여 장기기증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장기이식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장기이식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하여 장기기증의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장기이식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 2) 장기이식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다.
- 3) 장기기증 서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이유를 파악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일반인이 가지고 있는 장기이식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조사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은 일반인들의 장기이식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서울에 소재한 1개 대학 학생과 1개 초등학교 학생의 학부모 중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를 동의한 자를 편의표집하였다.

자료수집 방법은 질문지를 이용하였으며 기간은 2001년 12월 15일부터 2002년 2월 28일 까지였고 자료수집 전체 대상자 총 178명의 질문지 중 무응답이 많았던 12부를 제외한 166부를 본 연구분석에 이용하였다.

3. 연구도구

연구도구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8문항, 가족 및 가까운 친척의 장기이식 경험 및 문헌 및 다른 매체를 통한 교육을 받았는지에 관한 2문항, 장기기증을 포함한 장기이식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1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장기이식에 관한 태도는 Ju(1995)가 개발한 도구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문항의 내용은 장기이식의 필요성 및 인식, 뇌사에 관한 죽음인정, 뇌사자의 장기기증, 본인의 장기기증에 대한 태도에 대한 것이었다. 척도는 5점 척도였으며 부정적 태도 1점에서 긍정적 태도 5점으로 최저 14

점에서 최고 70점 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장기이식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84 이었다.

4.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부호화하여 SPSS Win 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처리 하였으며 분석과정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장기이식관련 경험 및 교육유무는 실수와 백분을 및 평균을 산출하였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장기이식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고 Post - hoc analysis 는 Scheffe'검정을 실시하였다. 장기이식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장기이식에 대한 태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응답자 166명 중 남자 48명(28.9%), 여자 118명(71.1%) 였으며 나이는 20세 이하가 21명(12.7%), 20대가 31명(18.7%), 30대가 75명(45.2%), 40대 이상이 39명(23.4%) 이었고 평균 연령은 34.1세 이었다. 종교가 있는 대상자는 101명(60.8%) 이었고 이중 기독교 54명(32.5%), 불

<Table 1> Attitudes of subjects on organ transplantation by general characteristics

(N=166)

Characteristics	N(%)	Attitude Mean \pm SD	t or F	p	Scheffe'
Sex					
male	48(28.9)	48.29 \pm 8.69	.99	.32	
female	118(71.1)	49.66 \pm 5.99			
Age(years)					
20 or less	21(12.7)	50.14 \pm 5.50	2.85*	.03	2)3
21 - 30	31(18.7)	51.93 \pm 6.43			
31 - 40	75(45.2)	47.82 \pm 6.55			
41 or more	39(23.4)	49.43 \pm 7.95			

*p<.05 **p<.01

<Table 1> Attitudes of subjects on organ transplantation by general characteristics (continued)(N=166)

Characteristics	N(%)	Attitude Mean ± SD	t or F	p	Scheffe'
Religion					
catholic	13(7.8)	49.03±8.24	.96	.42	
protestant	54(32.5)	50.62±6.72			
buddhism	28(16.9)	49.38±7.14			
others	6(3.6)	48.43±6.20			
no religion	65(39.2)	46.83±8.13			
Marital status					
married	108(65.1)	48.26±7.23	2.76**	.00	
never married	58(34.9)	51.12±5.81			
Education level					
graduation middle school or less	6(3.6)	48.83±4.26	5.33	.58	
graduation high school	62(37.4)	48.58±6.66			
graduation college or more	98(59.0)	49.72±7.16			
Monthly income					
less 1,000,000 won	15(9.0)	49.60±5.85	3.33*	.02	2)3
1,000,000 - 2,000,000 won	78(47.0)	50.08±6.26			
2,000,000 - 3,000,000 won	48(28.9)	46.77±7.16			
3,000,000 won or more	25(15.1)	51.28±7.78			
Family or Relatives disease					
yes	29(17.5)	48.31±6.55	.85	.39	
no	137(82.5)	49.46±6.96			
Disease of oneself					
yes	23(13.9)	49.65±6.83	.29	.77	
no	143(86.1)	49.20±6.91			
Indirect experience of organ transplantation (Family or Relatives)					
yes	3(1.8)	50.66±2.08	1.08	.72	
no	163(98.2)	49.23±6.94			
Experience of education for transplantation					
yes	44(26.5)	52.90±4.91	5.07**	.00	-
no	122(73.5)	47.95±7.03			

*p<.05 **p<.01

교 28명(16.9%), 카톨릭 13명(7.8%), 기타 6명(3.6%) 순 이었다.

대상자의 결혼상태는 기혼 108명(65.1%), 미혼 58명(34.9%) 이었다. 교육수준은 중졸 이하 6명(3.6%), 고졸 62명(37.4%), 전문대학 졸업이상 98명(59.0%)이었고 가구당 월 총수입은 100만원 미만 15명(9.0%),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78명(47.0%),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48명(28.9%), 300만원 이상 25명(15.1%)이었다.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의 질병 유무에 관한 문항은 모든 질병이 포함된 것으로 응답자의 29명(17.5%)

이 질병이 있다고 답한 반면 137명(82.5%)에서 질병이 없었다. 본인의 질병유무에 관한 사항에서는 응답자중 23명(13.9%)이 질병이 있다고 답하였고 143명(86.1%)은 질병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의 장기이식 경험에 관한 사항은 응답자 중 3명(1.8%)만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장기이식에 대한 교육을 받았는지에 대한 여부는 44명(26.5%)이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장기이식에 대한 태도 문항 내용은 장기이식의 필요성, 뇌사에 관한 죽음인정, 뇌사자의 장기기증, 장

기기증에 대한 인식, 본인의 장기기기증에 대한 태도 및 가족의 반응 등에 대한 것이었다. 대상자들의 장기이식 태도 점수의 평균은 총점 70점 중 49.26 ± 6.88 이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장기이식에 대한 태도점수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연령, 결혼상태, 월 총수입과 장기이식에 대한 교육경험에 따라 장기이식에 대한 태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연령은 20대가 30대에 비해 장기이식에 대한 더욱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2.85, P=0.03$). 또한, 결혼을 하지 않은 응답자보다 결혼을 한 응답자에서 장기이식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나타냈으며($F=2.76, P=0.00$), 월 총수입에서는 이백만원에서 삼백만원으로 응답한 집단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F=3.33, P=0.02$). 이전에 장기이식에 대한 교육을 받은 집단에서 교육을 받지 않은 집단에 비해 장기이식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t=5.07, P=0.00$).

2. 장기이식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장기이식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인 변수인 연령, 결혼상태, 월 총수입과 장기이식에 대한 교육경험을 투입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연령과 월 총수입은 가변수화 하여 처리하였다. 장기이식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주는 유의미한 요인은 교육경험($\beta = .31, t=4.30, p=.00$)과 결혼상태($\beta = .28, t=3.01, p=.00$)이었으며 두 변수가 장기이식 태도에 대한 변량을 20.1% 설명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2> Influencing factors in attitudes on organ transplantation(N=166)

Variables	B	β	t	p
Experience of education for transplantation	4.95	.31	4.30	.00
Marital status	4.79	.28	3.01	.00
adjusted R ² =20.1		F= 28.53(p=.00)		

3. 장기기증 서약서 미 작성 이유

<Table 3> Description of written pledge for one's organ donation (N=166)

Making a written pledge for one's organ donation	N(%)
Yes	62(37.3)
No	104(62.7)

<Table 4> Reasons of no written pledge for one's organ donation (N=104)

Reason	N
Not knowing the way how to do	32
owing to religious belief	5
owing to the fear on organ donation	65
owing to the physical condition	12
for giving my organs to the family when they need organ transplantation	15
total	129*

* N=129, due to multiple answer

연구대상자들의 장기기증 서약서 작성여부와 이를 작성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한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분석하였다. 장기기증 서약서 작성여부에 대하여 연구대상자 중 37.3%인 62명이 이미 장기기증 서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고 62.7%인 104명이 장기기증 서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장기기증 서약서를 작성하고 싶었지만 아직 작성하지 못한 대상자에게 이유를 확인한 결과 '장기기증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N=65), '장기기증 서약서를 작성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몰라서'(N=32), '가족이 장기이식이 필요한 경우 내 장기를 가족에게 주기 위하여'(N=15), '신체적 문제'(N=12), '종교적 신념'(N=5)으로 확인되었다 <table 4>. 이와 같은 결과는 실제적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장기기증을 실천하게 하고 활성화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데 필요한 전략을 수립하는데 있어 고려하여야 할 요인으로 파악된다.

IV. 논 의

본 연구에서 연구 대상자들의 장기이식에 대한 태도를 분석한 결과 태도점수의 평균은 총점 70점 중 49.26 ± 6.88 로 대체적으로 장기이식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뇌사 및 장기이식에 대한 환자와 일반인의 인식과 태도를 분석한 Kim(2000) 연구결과에서 장기이식의 필요성에 대해 대상자 90.0%가 필요하다고 인식하여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한 결과와 Yang(1994)이 의료인과 20 - 30대의 교사, 학생, 군인 등을 대상으로 뇌사와 장기이식에 관하여 찬성이 대상자의 54.3%, 뇌사자의 장기이식을 찬성하는 입장이 64.8%이었음을 보고한 내용과 일치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장기이식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연령, 결혼상태, 월 총수입과 장기이식에 대한 교육경험이 장기이식에 대한 태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 변수 중 장기이식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주는 유의미한 변수는 교육경험($\beta = .31, t = 4.30, p = .00$)과 결혼상태($\beta = .28, t = 3.01, p = .00$)이었으며 두 변수가 장기이식 태도에 대한 변량을 20.1% 설명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Kim(2000)의 연구에서 환자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장기이식에 대한 긍정적 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영향력 있는 변수는 장기이식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가족의 장기이증 찬성여부, 본인의 자기이증 의사, 타인에 대한 본인 및 가족의 장기이증 찬성여부, 뇌사인정 여부, 결혼상태였으며 이들 6개의 변수가 변량의 25.3%를 설명한 결과와 비교해볼 때 결혼상태가 장기이식에 대한 태도 및 인식을 형성하는데 있어 주요변수로 확인되었다. 이는 장기이식과 같은 주요의사결정과정에서 가족들의 의견이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요인이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장기이식에 대한 교육경험이 장기이식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형성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기 때문에 가족을 기본 단위 및 최소단위로 하여 장기이식 및 장기이증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 광범위한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운영된다면 보다 효과적인 장기이식 및 장기이증 활성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다.

장기기증 서약서 작성여부에 대하여 연구대상자 중 62명(37.3%)이 이미 장기이증 서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고 104명(62.7%)이 장기이증 서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들의 장기이증 서약서 작성실태는 아직까지 문헌이나 연구

결과 상 밝혀진 바는 없지만 장기이식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후속연구에서 이에 대해 확인을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장기이증 서약서를 작성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분석을 실시한 결과 '장기기증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장기기증 서약서를 작성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몰라서', '가족이 장기이식이 필요한 경우 내 장기를 가족에게 주기 위하여', '신체적 문제', '종교적 신념' 순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Kim(2000)의 연구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족간에 장기이증에 대해서는 관대하나 타인에 대한 장기이증에 소극적이어서 우리나라 고유의 가족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반영했던 결과와 일치하였다. 위 결과에서 확인된 내용은 실제적으로 일반인들이 장기이증 서약서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 요인으로 사전 교육프로그램 내용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즉, 여러 가지 장기이증 형태와 활용도 및 구체적인 장기이증 방법 등이 교육내용에 포함이 되어야 하겠고, 또한 장기이식 관리제도에 대한 정보제공 및 제도적으로도 일반인들이 간편한 방법으로 장기를 기증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때 장기이증 및 장기이식이 제도권 안에서 조화롭게 활성화될 수 있는 풍토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장기이식 수술이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는 하나의 방법으로 일반화 되어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장기이식에 대한 공감대를 우리사회에서 확대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일반인들의 장기이식에 대한 태도양상을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기 위하여 서울에 소재한 1개 대학학생과 1개 고등학교 학생의 학부모 178명을 대상으로 2001년 12월부터 2002년 2월까지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고 이 중 무 응답이 많았던 12부를 제외한 166부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연구 대상자들의 장기이식 태도 점수의 평균은 총점 70점 중 49.26±6.88이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장기이식에 대한 태도점수의 차이를 분

석한 결과 연령, 결혼상태, 월 총수입과 장기이식에 대한 교육경험에 따라 태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장기이식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인 변수인 연령, 결혼상태, 월 총수입과 장기이식에 대한 교육경험을 투입하여 다중 회기분석을 실시한 결과 이들 변수 중 장기이식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주는 유의미한 변수는 교육경험($\beta = .31$, $t = 4.30$, $p = .00$)과 결혼상태($\beta = .28$, $t = 3.01$, $p = .00$)이었으며 이들 변수가 장기이식 태도에 대한 변량을 20.1% 설명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연구대상자들의 장기기증 서약서 작성여부와 이를 작성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한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그 이유에 대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연구대상자 중 37.3%인 62명이 이미 장기기증 서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고 62.7%인 104명이 장기기증 서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장기기증 서약서를 작성하고 싶었지만 아직 작성하지 못한 대상자에게 이유를 확인 한 결과 '장기기증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장기기증 서약서를 작성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몰라서', '가족이 장기이식이 필요한 경우 내 장기를 가족에게 주기 위하여', '신체적 문제', '종교적 신념'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장기이식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장기이식에 대한 이전의 교육경험과 결혼상태였으므로 앞으로 장기이식에 대한 국민적 공감의 형성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기이식과 장기기증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보다 많은 프로그램들이 운영될 수 있다면 일반인들에게 장기이식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하고 이를 장기기증으로 연결된 행위를 수행하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결혼상태가 장기이식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로 나타난 것은 우리나라 문화에서 가족중심의 의사결정 행태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로 장기기증을 결정하는데 있어 가장 영향을 주는 요인인 가족을 기본 단위 및 최소단위로 하여

장기기증 및 장기기증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된다면 보다 효과적인 장기이식 및 장기기증 활성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자료수집 시 무작위 표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여 적용하는데 제한이 있으므로 연구 대상자를 무작위로 표집하여 반복연구를 시행할 것을 제언한다.
2. 가족단위의 장기이식 및 장기기증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시행되기를 제언한다.

References

- Bidigare, S. A. & Oerman, M. H. (1991). Attitude and knowledge of nurses regarding organ procurement. *Heart and lung*, 1(20).
- Cho, M. J. (1998). *Research on Attitude of morals on organ transplant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Ha, H. S. & Kim, J. S. (1996). The analysis of organ donation in the cerebral death on main organ transplantation hospital in Korea. *J Korean Soci for Trans*, 10(1), 163-169.
- Han, S. S. (1998). Medical ethics and organ transplantation. *J Korean Soci for Trans*, 12(1), 9-22.
- Ju, E. E. (1995). *Nursing attitudes toward organ transplant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eoul.
- Kim, H. C. (1998). Organ transplantation of the aged. *J Korean Soci for Trans*, 12(1), 1-5.
- Kim, K. S. (2000). *Cognition and attitude of patients and the public about cerebral*

- death and organ transplant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Inje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Pusan.
- Kim, K. W. (1992). A view of cerebral death. *J Sejong Medi*, 9(1), 59 - 63.
- Kim, S. J. (1996). The present state and prospect of organ transplantation in Korea. *J Korean Medi Asso*, 39, 6-1.
- Lee, K. H. (1991). *The law and ethics following medical growth*. Seoul: Hannam University press.
- Lee, K. S. (1993). Cerebral death and organ transplantation. *J Mental Health Research*, 12, 27-47.
- Lee, I. S. (1993). Concept of cerebral death and medical application. *J Korean Soci for Trans*, 7(1), 1-11.
- Matten, M. R., & Elena, M. S. (1991). Nurse's knowledge ,attitudes and beliefs regarding organ and tissue donation and transplantation. *Public health reports*. 3-4(1), 106.
- Park, E. K. (1993). *Socioculture and philosophy of law in modern times*. Seoul: Kyoyukkwahaksa.
- Park, K. I. (1995). The actual condition and task of organ transplantation in Korea. *J Green Cross*, 3, 105-107.
- Phillips, M. G. (1991). *UNOS organ procurement preservation an distribution in transplantation*.:Richmond, The William Byrd Press.
- Son, H. K., Kim, I. Y., & Kim, K. I. (1994). Attitude of cerebral death in doctors and the public. *J Neuropsych Medi*, 33, 141-162.
- Song, M. K. (1993). Report on a case of cardio transplantation. *Korea J Thoracic Cardiovas Surg*. 26(3), 224-227.
- Special feature article on organ transplantation of the cerebral death.* (2000). Pusan Ilbo.
- Strak, J. I., & Reiley, P. (1984). Attitude affecting organ donation in the intensive care unit. *Heart and lung*. 13. 400-404.
- Yang, E. M. (1994). *Analysis on the actual condition of cerebral death and organ transplant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 Hee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Abstract

Public's Attitude to Organ Transplants and Factors Influencing Attitudes

Shon, Young-Hee* · Cho, Chung-Min*

Purpose: This study was done to identify attitude and factors influencing attitudes to organ transplants.

Method: Study participants were 165 people over the age of 18 and living in Seoul. The instrument used for this study was the descriptive questionnaire developed by Ju (1995). Analysis of the data was done with SPSS Win 10.0 with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Results:

1. The scores on attitude toward organ transplants ranged from 14 to 70, and had a mean score of 49.26.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scores on attitude to organ transplants according to age ($p=.03$).

* National Medical Center College of Nursing

marital status ($p=.00$), monthly income ($p=.02$) and experience of having education about organ transplants ($p=.00$).

2. The factors influencing attitudes to organ transplants were having the experience of education on transplants and marital status. These two variables explained 20.1% of the variance.
3. Reasons given for no written pledge to donate one's organs were 'fear on organ

donation', 'not knowing the way or how to do', 'plan to give my organs to a family member when needed', 'physical condition' and 'religious belief'.

Conclusion: Experience with education for organ transplant and marital status were identified as important variables in attitudes to organ transplants.

Key words : Attitude, Organ transplantation